

#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한국어 교육 내용 선정 및 배열 연구

- '거절' 기능을 중심으로 -

신정애(경희대)

## 1. 서론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접근법이 주요한 교육 방법으로 대두된 이래 어떻게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는 큰 관심사였다. 한편 기존의 문장 단위를 기본으로 한 형태 위주의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의 내용을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sup>1)</sup> Finocchiro & Brumfit(1983)는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언어를 교육하면 실제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가르칠 수 있고 화자가 발화를 할 실제적인 목적과 말할 거리를 가지게 되어서 본질적으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우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 배양이라는 교육 목표가 실제 교육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요목을 마련하여 할 것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요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소통 중심 교수요목의 기본 단위인 의사소통 기능을 선정해야 하지만 연구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의 한 실례에 해당하는 거절 기능의 교수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 순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서경희(1999)는 거절을 문화 간의 가치나 규범 차이가 잘 반영되는 것으로서 특히 미묘한 상호 간의 협상을 포함하고 있어서 화용 전이가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거절은 고급 학습자라도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화용적인 실패를 초래하기 쉬운 기능이므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기능으로 판단되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어 교재에 거절 기능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분석한 후, 거절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을 구어 담화 분석을 통해서 추출하고 이 표현들의 배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 2. 선행 연구

거절 기능과 관련된 연구는 거절 기능의 실현 양상에 대해서 연구한 것과 거절 기능 표현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거절 기능의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로는 전정미(2006), 이해영(2003), 서희정(2001), 장경희(2000) 등이 있다.

이해영(2003)은 담화 완성형 테스트를 이용하여 일본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거절 화행 실현에 나타난 화용적 전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에 나타난 거절 화행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화용적 전이가 일어나며 어

1)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들로는 신정애(2008), 강현화(2007a), 강현화(2007b), 김서형(2007a), 한송화(2003) 등이 있다.

떤 경우에 목표어 사용에 가까운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일본인 한국어 고급 학습들의 거절 전략 선택은 거절 상황이 주는 부담의 정도에 좌우되고 부담이 커질수록 모국어에 기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정미(2006)는 드라마 대본을 분석하여 거절 화행이 나타나는 빈도를 살펴보고 거절 화행의 화용적인 전략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거절 화행의 전략은 제압형, 회피형, 융합형이 있는데 한국인을 거절을 할 때 회피형 > 제압형 > 융합형의 순으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은미(2004)는 한국인과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 화행 실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공손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역할극 수행을 통해서 한국인 화자와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많이 사용하는 거절 화행 유형을 밝히고 청자의 체면 손상을 막기 위해 어떤 언어적 장치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밝혔다.

서희정(2001)은 담화 완성형 테스트를 이용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의 거절 화행의 양상을 상황별, 사회적 변인에 따라 분석하고 한국어 교재와 비교하여 교재의 문제점을 밝혔다. 거절 화행을 거절자와 요청자 간의 상대적인 손익 관계, 행동 주체에 따라 요청, 초대, 제안, 제공, 제의에 대한 거절 화행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장경희(2000)는 청유 화행에 대한 응대 방법인 수락과 거절을 어떠한 태도로 응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수락과 거절의 응대 방법을 응대 상황에서 응대 화자가 지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또는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 거절의 응대는 대부분의 경우 간접적인 형식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하였다.

거절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는 이수연(2008), 강현화(2007b), 허상희(2003) 등이 있다.

이수연(2008)은 구어 담화 분석을 통하여 거절 화행을 수행하는 언어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거절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거절을 행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거절 의도의 실현 방법과 해석 과정에 따라 고정 형태와 비고정 형태로 나누고 고정 형태는 직접 거절과 간접 거절로 분류하였다. 또, 비고정 표현의 경우 거절 체면 손상에 대한 보상 전략에 따라 어떠한 표현이 나타나는지 같이 논하였다.

강현화(2007b)는 한국어 교재 및 학습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절의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문형표현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문형 표현을 설문지를 통하여 거절의 강도와 거절 방법, 선행 담화 상황에 따라 구분하였다.

허상희(2003)는 거절 화행의 표현을 구어 담화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여 거절 화행의 특성과 유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간접 화행의 경우는 일정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략별로 나누었다. 말할이와 들을이의 관계에 따라서 거절 화행이 직·간접 화행 중 어떤 화행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거절 기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거절 기능에 관한 연구들은 거절 기능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여 실현되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거절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들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에는 구어 담화나 교재 분석을 통해서 거절 표현 목록을 추출하였는데 거절 기능 교육 시 어떠한 순서로 표현들을 제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절 기능 표현 내용 구축과 함께 배열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 3. 거절 기능의 교육 내용 선정 및 배열

거절이란 화자의 제안이나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 제공, 요청, 초대, 인접 쌍) 중 비선호적 범주에 속하는 의사소통 기능이다. 거절은 화자의 말에 대한 불응 표현이므로 청자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거절 기능을 수행할 때는 공손성을 고려하여 한다. 청자의 체면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절을 할 때 거절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손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체면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언어 장치를 사용한다.

#### 3.1. 교재에 나타난 거절 기능

교재는 교육 과정과 실제 수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재에 교육 목적이 잘 구현되어 있어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거절 기능의 교육 내용을 구축하기에 앞서 교재에서 거절 기능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거절 기능의 교육 내용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희대 한국어 초급1~고급2, 서강대 서강 한국어 1A~4B, 서울대 한국어 1~4,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1~6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강대 교재는 1A, 서울대 교재는 1권, 이화여대 교재는 2~3에 거절 기능이 제시되어 있었다. 경희대 교재의 경우, 본문 내용에는 거절 기능과 관련된 표현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했지만 명시적으로 교수요목에는 거절 기능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화여대 교재에서 2권과 3권에 거절 기능이 나타나 있는 것을 제외하면 각 교재에서 1회씩만 거절 기능이 제시되거나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거절 기능이 전체 의사소통 기능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의사소통 접근법이 교육 내용 제시에서 구조주의 접근법과 차별화되는 것이 교육 내용을 나선형으로 순환적으로 제시하는 것인데 한국어 교재의 경우는 구조주의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선적인 제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이는 한국어 교재가 교육 내용을 순환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보다는 형태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각 교재에서 거절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교재	선행 발화	거절 표현
서강대	제안	미안해요 + 이유 대기
서울대	제안	미안하지만 못 V
이화여대	제안	미안해요, V-기로 했어요, 그럴 수야 없지요, 그런 말씀 마세요, V-가 쉽지 않은데요, 도저히 V-(으)ㄹ 수가 없다,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초대	A/V-아/어서 도저히 V-(으)ㄹ 수가 없다
	부탁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V-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저히 V-(으)ㄹ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N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V-(으)ㄹ 수가 없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2) 인접쌍은 대화문의 담화 연구 분석에 기본이 되는 구조 단위로서 발화가 인접해야 하고 각각 다른 화자에 의해 발화되며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으로 순서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 발화에 대한 후행 발화가 정형화되어 있어야 한다.(Schegoloff & Sacks, 1973 박정화, 2007 재인용)

표. 1 <교재에 제시된 거절 표현>

이화여대 교재를 제외하고는 제안에 대한 거절 표현만을 제시하고 있다. 거절이 제안, 제의, 초대, 제공 등에 대한 응답 표현이므로 선행 발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화여대 교재에는 거절 표현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다양한 대화 상황이나 화자와 청자의 관계 등 사회적 변인에 따른 거절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교재에 기능을 제시할 때에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표현을 나선형으로 배열하고 제시하는 기능의 인접쌍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황이나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 3.2. 거절 기능의 교육 내용 선정

본 절에서는 구어 담화 분석을 통하여 거절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과 헤지(hedges) 표현<sup>3)</sup>을 함께 추출하도록 하겠다. 거절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을 찾기 위해서 35편의 드라마 대본<sup>4)</sup>을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양이 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허상희(2003)<sup>5)</sup>에서 분석한 거절 표현을 참고로 하였다. 분석 결과 모두 240개의 상황 중에서 15개의 고정적인 표현과 54개의 비고정적인 표현을 추출하였는데 비고정적 표현은 간접 거절 표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이므로 분류에서는 제외하고 고정적인 표현만 논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거절은 ‘제안, 요청, 초대, 제공’ 등에 대해서 불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선행 발화의 유형에 따라서 대응되는 거절의 표현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 발화에 따른 거절 표현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제안의 경우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거절의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안을 화청자가 함께 하자는 제안, 화자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제안,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전체 240개의 대화 상황 중에서 제안에 대한 거절은 165개<sup>6)</sup>, 제공에 대한 거절은 38개, 요청에 대한 거절은 37개가 있었다. 초대에 대한 거절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sup>7)</sup> 선행 발화에 따라서 거절 표현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 발화		거절 표현	
제안	화·청자가 함께	어휘	나중에, 됐다, 싫다, 아니

3) 화자는 대화 상황에서 청자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적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언어적 장치를 헤지라고 한다.

4) 영화 ‘ing’, ‘클래식’, ‘봄날은 간다’, ‘동감’, 드라마 ‘넌 내게 반했어’ 70~81회, ‘너는 내 운명’ 47~57회, ‘돌아온 뚝배기’ 1~10회, ‘큰인니’ 24~31회

5) 허상희(2003)에서는 드라마 ‘좋은걸 어떡해’, ‘보고 또 보고’, ‘날마다 행복해’, ‘이브의 모든 것’, ‘러빙유’를 분석하였는데 총 몇 편을 분석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6) 화청자가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상황은 63개, 화자가 하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상황은 55개,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을 제안하는 상황은 47개이다.

7) 240개의 상황 중에서 초대에 대한 거절 상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한국의 경우 초대 문화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경우는 결혼, 생일(돌이나 환갑), 집들이 등으로 초대하는 일이 비교적 제한적인 편이다. 결혼, 돌, 환갑, 집들이 등은 중요한 행사로 인식되어 대부분은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초대에 대한 거절 상황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자는 제안	문형	A-(으)ㄴ데/V-는데, N(이/가) 없다 <sup>8)</sup> , V-(으)면 안돼요?, V-아/어야 하다, 안 V, 다음에 V(-자, -(으)ㅂ시다)
	화자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제안	어휘	괜찮다, 됐다, 아니, 아니다
	청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을 제안	문형	N(이/가) 없다, V-지 마세요, V-지 않아도 되다
		어휘	곤란하다, 괜찮다, 나중에, 싫다, 아니
	제공	문형	A-(으)ㄴ데/V-는데, N(이/가) 없다, V-아/어야 하다, 다음에 V(-(으)르게요), 안 V
		어휘	괜찮다, 됐다, 싫다, 아니
	요청	문형	A-(으)ㄴ데/V-는데, N(이/가) 없다, 안 V(안 받다)
		어휘	싫다
		문형	A-(으)ㄴ데/V-는데, A/V-아/어서, N(이/가) 없다, 다음에 V, 안 V

표. 2 <선행 발화에 대응되는 거절 표현>

제안, 제공, 요청의 발화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은 ‘N(이/가) 없다’뿐이었는데 문형은 같지만 ‘N(이/가) 없다’의 사용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N(이/가) 없다’의 문형을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은 ‘시간 없다, 필요 없다, 생각 없다’ 등의 표현인데 이는 제안이나 제공에 대한 거절의 표현으로는 쓰일 수 있지만 요청에 대한 거절로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도 있다.<sup>9)</sup>

‘안 V’ 문형의 경우 ‘안 돼요’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제공의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것을 준다는 특성 때문에 ‘안 받다’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다음에 V’ 문형은 선행 발화에 따라서 종결형 어미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화-청자가 함께 하자는 제안에 대한 거절에는 ‘다음에 V-자/-(으)ㅂ시다’로 청유법 어미가 많이 왔고 청자에게 어떤 일을 제안하는 경우에 대한 거절에는 ‘다음에 V-(으)르게(요)’의 약속법 어미와 많이 호응 관계를 이루었다.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아니’는 단독으로 쓰여서 거절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아니, 괜찮아’, ‘아니, 됐어’, ‘아니, 생각 없어’ 등의 식으로 다른 표현과 어울려서 거절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때의 ‘아니’는 거절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의 의미를 더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나중에’ 또한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거절 표현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sup>10)</sup>

거절 기능의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는 거절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절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거절 기능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므로 화자는 청자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적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언어적 장치를 헤지(hedges)라고 한다. 구어 담화 분석 결과 추출한 헤지 표현은 다음과 같다.

8) 진한색으로 표시한 문형은 제안, 제공, 요청에 대한 거절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표현임을 뜻한다.  
 9) 제안에 대한 거절 표현 ‘N(이/가) 없다’는 ‘자신 없다, 할 말 없다, 입맛 없다, 생각 없다, 일 없다, 필요 없다, 시간 없다, 돈 없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제공에 대한 거절 표현으로 쓰인 ‘N(이/가) 없다’는 ‘필요 없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또, 요청에 대한 거절 표현으로 쓰인 ‘N(이/가) 없다’는 ‘시간 없다, 돈 없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제안에 대한 거절 표현 ‘N(이/가) 없다’는 ‘자신 없다, 할 말 없다, 입맛 없다, 생각 없다, 일 없다, 필요 없다, 돈 없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제공에 대한 거절 표현으로 쓰인 ‘N(이/가) 없다’는 ‘필요 없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또, 요청에 대한 거절 표현으로 쓰인 ‘N(이/가) 없다’는 ‘시간 없다, 돈 없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10) ‘안 돼, 나중에’, ‘됐어, 나중에 먹을래.’ ‘싫어, 나중에 보자.’

헤지	그런데, 글썄, 미안하다/죄송하다, 저기
----	------------------------

표. 3 <거절 기능 수행하는 헤지>

'미안하다/죄송하다'는 사과를 할 때 쓰는 말이지만 거절에 앞서 사과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줄일 수 있게 해 주므로 헤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헤지 표현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거절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1) 가: 이따가 7시 공연인데 괜찮겠어?  
 나: 선배님,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요.  
 나: 근데... 저기... 선배님,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요.  
 (영화 '동감')

- 2) 가: 내일 저녁 여기 학교 소극장이야. 7시. 시간 돼?  
 나: 내가 좀 바쁠 것 같은데?  
 나: 글썄, 내가 좀 바쁠 것 같은데?  
 (드라마 '큰언니' 25회)

위의 예문 1)과 2)에서 나)과 나)'를 비교했을 때 헤지가 사용되지 않은 나)에 비해서 나)'의 경우는 거절을 하는 화자가 거절을 하지만 이 거절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화자의 이러한 망설임을 통해서 청자의 체면 손상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체면 손상을 줄이는 것은 다른 헤지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 3) 가: 나 저기 지하철역까지만 잠깐 태워다 주세요.  
 나: 안 되겠는데요.  
 나: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데요.  
 (드라마 '돌아온 뚝배기' 2회)

3)의 예문에서도 '미안하다'는 표현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거절 표현을 함으로써 청자는 화자가 거절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화자가 거절을 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또, 화자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청자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헤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방지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학습자들에게 거절 표현을 가르칠 때는 체면을 손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헤지 표현을 함께 가르쳐서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성공적으로 대화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3. 거절 기능의 교육 내용 배열

거절 기능을 교육할 때 거절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들을 모두 한꺼번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거절 기능을 교육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 내용을

배열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배열 순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Thornbury(2004)는 문법 항목의 복잡성, 학습 가능성, 교수 가능성에 따라서 교수요목을 단계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제열(2001)은 문법 항목의 배열 기준으로 사용 빈도, 난이도,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의 기대 문법, 기능 또는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문법 요소 자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타당성을 고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난이도와 일반화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문법 항목을 배열하였다. Thornbury(2004)나 김제열(2001)의 배열 기준은 문법 항목에 중심을 둔 기준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표현 항목<sup>11)</sup> 배열 기준을 달라질 필요가 있다. Canale & Swain(1980)은 통사적 복잡도,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된 발화의 투명도, 언어형태의 습득의 용이성, 인지 전략에 따른 수용 가능성 등에 따라서 의사소통 기능 항목의 세부 표현의 배열할 수 있다고 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재인용) 항목의 배열 기준으로 여러 기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현 항목의 배열을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Canale & Swain(1980)의 배열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다만 언어형태의 습득의 용이성과 인지 전략에 따른 수용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고 거절 기능이 청자의 체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손성이 중하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표현 항목의 공손도를 반영하여 배열 순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sup>12)</sup>

### 3.3.1. 거절 기능 표현의 통사적 복잡도

Botel & Granowsky(1972)에서는 통사적 복잡도를 0~3 단계로 설정하였다. 통사적 복잡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0단계	2개 혹은 3개로 구성된 문장, 단순 변형이 적용된 문장, and로 연결된 문장, 비문장 표현
1단계	4개의 어휘로 구성된 문장, 수식어가 있는 문장, 부정어·동명사·조동사 등을 사용한 문장, 등위절
2단계	수동 구문, 짝으로 이뤄지는 접속사, 종속절, 일반적인 형용사 자리에 오지 않는 분사구문, 주어 기능을 하는 부정사, comma로 연결되는 동격 구문
3단계	주절이 있는 구문, 독립 구문

표. 4 <Botel & Granowsky(1972)의 통사적 복잡도 기준>

그런데 Botel & Granowsky(1972)의 기준은 영어의 통사적 복잡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와 체계와 다른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안병곤(2007)은 Botel & Granowsky(1972)의 기준에 일본어에 맞게 변형하였다. 문장의 길이(단어 수), 문장의 문법적 난이도,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통사적 복잡도를 분석하였다. 문장 문법적 난이도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경우 별도로 계산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언어의 구조가 비슷하므로 안병곤(2007)의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사적 복잡도는 어휘와 문형으로 분

11) Thornbury(2004)나 김제열(2001)과 같이 문법 항목이라고 하지 않고 표현 항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의사소통 기능은 문법 항목뿐만 아니라 어휘나 상용구에 의해서도 실현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아우르는 말로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2) 거절은 제안, 제공, 초대, 요청에 대한 거절로 분류되므로 선행 발화에 따른 거절의 배열 순서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겠다. 의사소통 기능의 배열 문제는 전체 의사소통 기능 항목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선행 발화에 대한 거절 표현의 제시 순서에 대해서만 제시하겠다.

류하여 분석하였다. 어휘는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등급과 빈도 순위를 따랐다.

어휘	1. 됐다	2. 아니다	3. 싫다	4. 괜찮다	5. 나중에	6. 곤란하다
등급	A	A	A	A	A	C
빈도 순위	5	16	776	813	1018	3675

표. 5 <거절 표현 어휘의 난이도>

안병곤(2007)에 따라 문형의 통사적 복잡도를 분석하면 ‘안 V < N이/가 없다 < 다음에 V < A/V-아/어서 < V-지 말다 < A/V-(으)ㄴ데/는데 < A/V-아/어야하다 < V-(으)면 안 돼요? < V-지 않아도 되다’의 순서로 나타낼 수 있다.

헤지 표현의 경우는 어휘 차원이므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의 등급과 빈도에 따라 복잡도를 정하였다.

어휘	1. 그런데	2. 미안하다	3. 저기	4. 죄송하다	5. 글썸
등급	A	A	A	A	B
빈도 순위	142	1484	1692	2724	1972

표. 6 <헤지 표현 어휘의 난이도>

### 3.3.2. 거절 기능 표현의 투명도

거절 기능 표현의 투명도에 따라 배열 순서를 정할 때는 문장 자체의 형태만으로 거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순서를 결정한다. 거절 기능 표현이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절이라면 그 표현은 투명하다고 할 수 있고 1차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발화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어휘의 경우 ‘싫다, 나중, 곤란하다’는 1차적인 의미만으로 거절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됐다, 아니다, 괜찮다’는 1차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수행하고 있다. ‘됐다’는 ‘되다’의 과거형으로 거절의 의미가 없다. ‘아니다’도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사양’의 의미가 1차 의미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괜찮다’도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절 표현으로 쓰일 경우는 의미가 불투명하다.

문형의 경우는 ‘안 V, N이/가 없다, 다음에 V’은 문장 자체만으로 거절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A/V-아/어서, V-지 말다, A/V-(으)ㄴ데/는데, A/V-아/어야하다, V-(으)면 안돼요?, V-지 않아도 되다’는 다른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이다. ‘A/V-아/어서’는 이유, ‘V-지 말다’는 청유의 부정이나 금지, ‘A/V-(으)ㄴ데/는데’는 상황 제시나 대조, ‘A/V-아/어야하다’는 의무, ‘V-(으)면 안돼요?’는 허락이나 허용을 구하는 표현, ‘V-지 않아도 되다’는 허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절 기능 표현의 투명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가 투명한 표현	의미가 불투명한 표현
싫다, 나중, 곤란하다, 안 V, N이/가 없다, 다음에 V	됐다, 아니다, 괜찮다, A/V-아/어서, V-지 말다, A/V-(으)ㄴ데/는데, A/V-아/어야하다, V-(으)면 안돼요?, V-지 않아도 되다

표. 7 <거절 표현의 의미 투명도>

헤지 표현의 경우, ‘그런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글썽’의 1차적 의미가 거절이나 부정적인 의미가 뒤에 올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지만 ‘저기’는 ‘위치나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1차적 의미로는 거절과 함께 쓰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

의미가 투명한 표현	의미가 불투명한 표현
그런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글썽	저기

표. 8 <헤지 표현의 의미 투명도>

### 3.3.3. 거절 표현의 공손성

본 연구에서는 Hill et al(1986)의 인식된 거리(Perceived Distance) 방법을 도입하여 거절 표현의 공손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인식된 거리(Perceived Distance)는 설문지를 통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각 거절 표현이 가지는 심리적 거리를 1~5<sup>13)</sup>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거절 표현의 공손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조사는 남자 18명, 여자 30명 총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손도	제안에 대한 거절			제공에 대한 거절	요청에 대한 거절
	화청자가 함께 하자는 것에 대한 거절	화자가 하겠다는 것에 대한 거절	청자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절		
5					
4	V-(으)면 안돼요?	괜찮다			
				괜찮다	
3			V-아/어야 하다		
	A-(으)ㄴ데/V-는데		A-(으)ㄴ데/V-는데		
	다음에+ V	아니다	나중에		
	V-아/어야 하다		다음에+ V	A-(으)ㄴ데/V-는데	A-(으)ㄴ데/V-는데
		괜찮다	다음에+ V, A/V-아/어서	다음에+ V, A/V-아/어서	
2		V-지 않아도 되다	곤란하다		
	나중에		N(이/가) 없다		

13) 표현이 1일 경우는 심리적으로 가장 편한 것이고 5일 때는 심리적으로 조심스러운 것을 나타내어 이 심리적으로 편하다는 것은 공손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리적으로 조심스럽다는 것은 공손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V-지 마세요			N(이/가) 없다
1	N(이/가) 없다	N(이/가) 없다	안 V	안 V	
	안 V				
		됐다			
				됐다	
					안 V
	됐다, 싫다		싫다	N(이/가) 없다	
			싫다	싫다	

표. 9 <거절 표현의 공손도>

조사 결과 ‘됐다, 싫다, 안 V, N(이/가) 없다’ 등의 직접적인 거절 표현은 공손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A/V-아/어서요, V-아/어야 하다, A-(으)ㄴ데/V-는데’ 등과 같이 이유를 제시하거나 ‘V-(으)면 안돼요?, 다음에 V’ 등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절 표현이 공손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거절을 당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같은 거절 표현일지라도 선행 발화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공손성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 절에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거절 표현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표현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선행 발화에 따라서 거절 반응을 달리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거절 표현을 가르칠 때는 선행 발화와 인접쌍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 선행 발화에 대해서 거절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헤지 표현은 표현 자체가 공손성을 높여 주는 표현이므로 표현 자체가 가지는 공손도를 수치화하는 작업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헤지 표현 안에서 어떤 표현이 더 공손하든 정도만을 가리면 될 것이다. 헤지 표현의 공손도는 ‘죄송하다 > 미안하다 > 저기 > 그런데 > 글썽’의 순으로 나타났다.

### 3.3.4. 거절 기능의 배열 순서

지금까지 거절 기능 교육 내용 배열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표현의 통사적 복잡도, 의미의 투명도, 표현의 공손도를 알아보았다. 본 절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합하여 거절 기능 표현의 배열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다. 청자와의 관계나 의사소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거절 기능을 교육할 때는 공손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거절 기능의 배열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표현의 공손도를 첫 번째로 기준으로 삼고 통사적 복잡도, 의미의 투명도의 순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거절 기능의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시 순서	제안에 대한 거절			제공에 대한 거절	요청에 대한 거절
	화청자가 함께 하자는 것에 대한 거절	화자가 하겠다는 것에 대한 거절	청자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절		
1	다음에+ V	아니다	다음에+ V	다음에+ V	다음에+ V

2	A-(으)ㄴ테/V-는데	괜찮다	A-(으)ㄴ테/V-는데	A-(으)ㄴ테/V-는데	A-(으)ㄴ테/V-는데
3	V-아/어야 하다	V-지 마세요	괜찮다	괜찮다	A/V-아/어서
4	나중에	N(이/가) 없다	나중에	A/V-아/어서	N(이/가) 없다
5	안 V	V-지 않아도 되다	V-아/어야 하다	안 V	안 V
6	N(이/가) 없다	됐다	N(이/가) 없다	됐다	싫다
7	V-(으)면 안돼요?		곤란하다	N(이/가) 없다	
8	됐다		안 V	싫다	
9	싫다		싫다		

표. 10 <거절 표현의 배열 순서>

헤지 표현은 공손도, 통사적 복잡도, 의미의 투명도를 고려하여 ‘미안하다 > 죄송하다 > 저기 > 그런데 > 글썽’의 순으로 배열 순서를 정하였다.

#### 4. 결론

본 연구는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언어를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절 기능의 내용 선정과 함께 배열 순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기존의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내용 구축 논문들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 목록을 구축하고 각 표현들이 가지는 형태·통사·의미·담화적 특성만을 다룬 것과 달리 배열 순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구어 담화 분석을 통해 선정한 거절 기능 표현의 본 연구에서는 배열 순서를 모두 제시하였지만 교육은 항상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없고 선택의 문제이므로 교재 제작이나 교수 현장에 반영할 때는 교육 내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수 내용이나 배열 순서를 선정할 때 학습자의 연령, 사회 문화적 수준, 심리적인 면, 학습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 <참고 문헌>

- 강현화(2007a),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강현화(2007b), 한국어 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담화기능별 문형표현 단위에 대한 연구  
-‘거절’의 담화기능을 중심으로-, 응용언어학 23-1, 응용언어학회  
김서형(2007a), 한국어 교육을 위한 희망 표현 연구, 한국어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서형(2007b), 한국어 의도성 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제열(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동호(2007), 한국어 문법의 체계와 교육 내용 구축 방안,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박정화(2007),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 분석을 통한 의사소통 기능 개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경희(2000), 화행이론과 외국어 교육, 외국어교육연구논집, 1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교육연구소  
서희정(2001), 한국어 거절 화행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정애(2008), 한국어 교육을 위한 허락 요청 연구-허락 요청 표현의 공손성을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년 봄 정기 학술대회 발표요지, 한국언어문화학회  
안병곤(2007), 일본어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통사적 복잡도 분석 연구, 일어교육 41,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윤은미(2004), 한국인과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 화행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연(2008), 한국어 거절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해영(2003), 일본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거절 화행 실현 양상 연구,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장경희(2000), 청유 화행에 대한 수락과 거절, 텍스트 언어학 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전정미(2006), 거절 화행의 실현 양상,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 정은영(2001),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교재 편찬을 위한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상현(1995),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수/학습을 위한 언화 행위 (의사소통 기능) 목록 작성에  
관한 연구, 불어불문학 연구 31-2, 불어불문학회
- 한송화(2003), 기능과 문법 요소의 연결을 통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14-3,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한송화(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허상희(2003), 우리말 거절 화행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otel, M & Granowsky(1972), A formula for meaning syntactic complexity,  
Elementary 49
- Canale & Swain(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 Finocchiro, M & Brumfit, C(1983) The Functional-notional approach: From theory to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ill et al (1986) Universals of linguistic politeness: Quantitative evidence from  
Japanese and American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10.
- Hymes, D. H.(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and J. Holmes(eds.):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 Scott Thornbury, 이관규외(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화사
- Stephen C. Levinson, 이익환, 권경원 옮김(1993), 화용론, 한신문화사
- Willkins, D. A.(1976), Notional Syllabu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Ek(1980), Threshold level English, Oxford: Pergamon

<한국어 교재>

- 서울대학교 언어 교육원(2003), 한국어 1~4, 문진 미디어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3), 서강 한국어 1~4, 하우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말이 트이는 한국어 1~4,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1), 한국어 1~6, 경희대학교 출판부

<연구 보고서>

- 국립국어원(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국립국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영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구어 담화 분석 자료>

영화 ‘동감’

영화 ‘봄날은 간다’,

영화 ‘클래식’

영화 ‘ing’

드라마 ‘너는 내 운명’ 47~57회

드라마 ‘넌 내게 반했어’ 70~81회

드라마 ‘돌아온 똑배기’ 1~10회

드라마 ‘큰언니’ 24~31회